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

안우진 기자 | 승인 2022.12.08 07:31

>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중요성 강조

한국발명진흥회 건물전경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코로나19 위기 속 중소기업 경영난 극복 및 사업 확장에 지식재산(IP) 금융의 역할은 증대됐다. 지난 2월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 금융 잔액이 사상 최초 6조원(6조 90억 원)을 돌파했고 2021년 신규공급액은 2조 5041억 원으로 전년(2조 640억 원) 대비 2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2022년 지식재산 금융신규공급액은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청은 '발명의 평가기관'을 2007년부터 지정해오고 있으며 2022년 4월 평가역량을 갖춘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5곳 추가 지정해 총 23개 발명의 평가기관(공공기관 9개, 민간기관 14개)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발명의 평가기관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

(IP)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전문 기관이다.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는 은행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보증기관의 지식재산 보증서 발급, 투자기관의 지식재산 투자, 지식재산 거래·이전, 지식재산 사업타당성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금융과 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품질관리 체계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8월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2023년부터 설치·운영해 발명의 평가기관의 IP가치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관리체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발명진흥회는 2020년 12월부터 평가역량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평가품질관리팀을 신설해 IP가치평가 신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평가품질관리팀은 평가결과에 대한 품질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진단해 평가기관에 환류하고 있다. 또한 평가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발명의 평가기관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품질기준 마련을 위해 IP가치평가 품질관리 가이드를 `22년 11월 개정 배포했다.

한편 한국발명진흥회 손용욱 상근부회장은 "지속적인 IP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IP 가치평가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증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해 IP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우진 기자